

고창군, 공동주택 1800세대 공급

덕산지구 개발 2026년 4월 착공
2028년 1200세대 임대·분양
2029년까지 장기 주택정책 추진
청년 등 신규 인구 유입 등 기대



'터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고창군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등을 통해 공동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고창군은 오는 2029년까지 장기적인 주택정책으로 지역에 18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 4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해 2028년 12월 300세대의 임대주택과 900세대의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고창군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집중하고 있다.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2027년 21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정으로 청년층, 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근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사업 공모에 선정된 '고창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고창 신활력산단단지내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총 200세대의 주택이 2029년에 공급될 예정이다.

200세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다수의 기업들이 고창으로 투자와 입주를 결정하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고창읍 석교리에 건축 중인 광신프로그레스(206세대)와 고창읍 읍내리 일원에 건축 중인 환

동해 도시형 생활주택(76세대) 등 민간기업의 공동주택 역시 건설이 한창이다.

군은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 정책으로 현재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다양한 주민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공동주택 공급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산 도라지, 화장품 원료로 해외 진출

바이오산업연구원, 꽃·잎·줄기도 사포닌 성분 함유 확인

남원시 출연기관인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지역 생산 '도라지'의 화장품 원료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혔으므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됐다.

연구원(이사장 최경식 남원시장)은 도라지의 유효 성분인 '사포닌'이 뿌리뿐만 아니라 꽃과 잎, 줄기에도 다량 함유돼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수치로 데이터화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 연구 결과를 미국 국제화장품분석사(ICID)에 등재했다. 이를 통해 해외 기업이 남원에서 생산된 도라지의 모든 부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유행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던 도라지의 경우, 사포닌 성분의 유의미한 함량이 뿌리부분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꽃·잎·줄기 부분은 수확 후 1차 가공 과정에서 모두 버려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와 ICID 등재로 앞으로

는 해외 기업도 도라지의 꽃·잎·줄기까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관내 유기농 도라지 재배농가의 소득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 기대된다.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남원 유기농 도라지는 현재 유기농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 '루바마바이오텍'을 통해 가공돼 (주)젠코스메틱의 화장품 브랜드인 '시오리스'의 안티에이징 에센스로 만들어지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와 ICID 등재는 국제 유기농 화장품원료 시장 내 루바마바이오텍의 비중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그간 연구한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 기업 기술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며 "남원 화장품기업의 차별화된 기능성 원료 확보로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군민의 장' 수상자 5명 선정

공익·문화체육·산업근로·애향·효행장 부문



왼쪽부터 공익장 정종만 씨, 문화체육장 김영남 씨, 산업근로장 김기주 씨, 애향장 이인재 씨, 효행장 오애숙 씨.

고창군이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5명의 군민을 '제40회 고창군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된 올해 '고창군민의 장' 수상자는 ▲공익장 정종만(63)씨 ▲문화체육장 김영남(66)씨 ▲산업근로장 김기주(67)씨 ▲애향장 이인재(62)씨 ▲효행장 오애숙(73·여) 씨 등이다.

공익장 정종만 씨는 고창군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장애인복지 발전과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고 관련 정책의 내실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문화체육장 김영남 씨는 자연에 천연염색문화 공간 대표로서 천연염색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천연염색 저변확대에 기여했고 천연염색 교육 등 후학양성에도 열정을 쏟아 고창군 문화발전에 공헌했다.

산업근로장 김기주 씨는 무장대산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스마트 원예단지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유통 활성화하는 한편 고창 대표 농특산물인 수박과 멜론의 명품브랜드 육성에도 힘을 쏟았다.

애향장 이인재 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으로서 투철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재정건정성과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효행장 오애숙 씨는 101세의 시어머니와 94세의 친정어머니를 50여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셔 오며 참다운 효부의 모습을 보여줘 지역사회 귀감이 됐다.

지난 1985년 첫 시상이 이뤄진 '고창군민의 장'은 지난해까지 총 39회에 걸쳐 171명의 영예로운 수상자를 배출했다.

고창군은 오는 10월11일 '고창군민의 날'에 5명의 수상자를 시상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2024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정읍 기적의도서관' 거점기관 선정

정읍 기적의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4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공공디자인 거점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적의도서관은 지역 사회와 협력하며 독서문화 활성화를 하는 어린이 독서문화 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24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은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 친화적인 축제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10월 25일부터 열흘간 '포용으로 피어나는 공공디자인' 주제로 전국의 우수 공공디자인 거점기관 10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기적의도서관은 이번 축제를 통해 전국에서 방문한 다양한 관람객들에게 고(故) 정기용 건축가의 '어린이들이 달팽이처럼 천천히, 꾸준히 자라 무지개에 오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무지개와 달팽이' 공간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10월 26일에는 지역 예술가들 초청해 특별한 '도서관 음악회'를 개최해, 독서와 예술의 조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도서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열린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가을 '내장산 서래봉' 예약 후 탐방하세요

10월21일~11월19일 서래탐방지원센터~서래봉~벽련암 2.8km



단풍 절정기 내장산국립공원, 탐방객 예약제가 실시되는 구간 중심 서래봉이 보인다.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이 가을 성수기 탐방객 밀집에 대비해 탐방객 예약제를 운영한다.

공원사무소(소장 한경동)는 오는 10월21일부터 11월19일까지 30일간 서래탐방지원센터~서래봉~벽련암 2.8km구간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장산국립공원의 탐방로 예약제는 정상부 일원의 동·식물 보호와 사전 예약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공원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됐다.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 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이 기간 해당 구간의 1일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은 520명이며 방문 당일 예약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출발지점인 서래탐방지원센터와 벽련암 탐방로 입구에서 현장신청도 할 수 있다.

심용식 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된 탐방로 예약제에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